

안과 밖

Inside and outside

글. 김선재 Kim Sunjea | 소설가



“외부는 늘 하나의 내부이다.”

르 코르뷔지에가 한 말이다.

그는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 언덕 위에 ‘롱상 성당’을 지었다. 그 성당을 찍은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어떤 절대자가 나타날 것만 같다. 니콜라스 판이라는 사진가가 담아놓은 롱상 성당의 모습은 꼭 그랬다. 열린 동시에 닫힌 공간, 직진밖에 모르는 빛이 몸을 말아 사유하는 공간, 없으면서도 있고 있으면서도 없는 곳...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는 그가 벌집 형 거대 주거단지의 주창자였다는 사실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자리에선가 전 세계에서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 이상을 그 스케치만 베껴다 현실화한 유일한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일 거라 단언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채워진 우리의 신도시를 르 코르뷔지가 봤더라면 아마 자신의 손목을 자르고 싶지 않았을까. 그는 아마 그렇게 덧붙였던 것 같다.

하루의 해가 기운다. 살아 있는 동안 매일 되풀이될 이 시간의 햇빛은 늘 같으면서 다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영영 잃어버린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나는 안다. 이 도시에서 지평선은 영영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지평선을 제대로 본 적이 있기는 할까. 빛은 있으나 선(線)은 없고 선(善) 또한 노을처럼 멀고 흐릿해진다. 편리가 모든 선(線)과 선(善)을 지우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도, 나는 나를 둘러싼 이곳을 결코 떠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매번 되풀이되는 빛과 어둠 속에서 기억과 의식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왜곡되면서 또 내일로 향해 갈 테니까. 그게 나를 이루는 외부이면서 내부 그 자체일 테니까.

“외부는 내부의 결과이다.”

나무에 걸린 새집을 바라보다가, 그 새집을 둘러싼 허공을 바라보다가 나는 문득 중얼거렸다. 이 역시 르 코르뷔지에가 한 말이다. 어둡고 좁은 틈 속에서 낡은 책들에 둘러싸인 한때의 기억이 뒤따른다. 어쩌면 그 한때가 지금의 나를 이룬 것인지도 모른다. 안에서 밖이 보이지 않던 시절이면서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곳에 처음 갔던 게 언제였는지 알 수 없다. 언덕길을 한참 걸어 내려가 큰 도로로 나가는 입구에 있던 그곳은 늘 밖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그것만은 분명하다. 책이 귀한 시절이었다. 엄마가 들여놓은 세계명작동화 한 질을 이미 마르고 닳도록 읽어서 표지나 목차를 외울 즈음이기도 했다. 헌책방 입구에 내 키 높이보다 더 높이 쌓인 책들은 위협적이었지만 매혹적이기도 했던 건 아마 그 때문이었을 거다. 아버지를 따라간 그곳은 나에게 펍 이질적이면서 신기한 공간이었다.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책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아버지는 종종 그곳에서 무협지를 샀고, 산 무협지를 되팔기도 했다. 아버지가 책을 고르는 동안은 마음껏 좁고 어두운 책과 책 사이를 돌아다닐 수 있었다. ‘青春은 아름다워’나 ‘戰爭과 平和’ 같은 한자를 읽기에 너무 어렸던 내가 그곳을 좋아했던 건 냄새 때문이었던 것 같다. 헌책방에서는 낡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난다. 그건 그 책이 지나온 일상의 냄새인 동시에 각각의 활자들이 기록하는 또 다른 세상의 냄새 같기도 했다. 무

겹고 어둡고 퀴퀴하고 서늘한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나는 좋았다. 영문도 없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들어서면 바깥일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나를 기다리는 괴로운 일상들-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쪽지 시험이나 숙제들-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던 셈이다. 아버지와 나는 종종 긴 그림자를 끌고 언덕길을 내려갔다가 어둑해진 저녁을 안고 돌아오곤 했다. 왜 아버지가 늘 나를 데리고 헌책방에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헌책방 냄새를 생의 어딘가에 저장할 수 있었다. 물론 그 기억은 기우는 햇살 속을 떠다니는 먼지 같아서 잠깐 반짝거리다가 이내 사라진다. 기억이란 늘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그런 기억과 그 기억에 수반되는 감각들이 나를 나로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반복되겠지.

종종 나에게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적당히 둘러대기는 하지만 사실은 나도 잘 모른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와서 그런 질문을 받는 상황이 됐다는 게 솔직한 형편이다. 누구에게나 시원(始原)의 감각이 있다. 불연속적이고 파편화된 그 찰나의 감각이 내내 내 삶 전체를 지배한다. 아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그것일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혹은 나조차도 모르게.

새가 돌아온다. 새가 나는 동안 허공은 채워지며 비어가는 공간들로 충만하다. '외부가 늘 하나의 내부'라면, 새의 내부는 허공이고, 새의 외부는 사각의 상자 안인 것도 가능하다고 나는 빈 하늘 사이로 내려앉는 새를 보며 생각한다. 외부이면서 동시에 내부인 세계에서 햇빛이 사그라진다. 빛이 뭉치다가 사라져 간다.